

葛庵 李玄逸과 寧海지역의 퇴계학맥

朴 洪 植*

• 目 次 •

- | | |
|------------------|-------------|
| I. 머리말 | III. 갈암의 사상 |
| II. 갈암과 영해의 퇴계학맥 | 1. 성리학적 특징 |
| 1. 갈암의 생애 | 2. 경세론적 특징 |
| 2. 영해 지역의 퇴계학맥 | IV. 맺음말 |

I. 머리말

창 앞의 네 그루 매화나무
황혼 녘 달을 향해 피었네
꽃 아래서 술을 마시려 하였더니
오랑캐들이 성을 에워쌌다네¹⁾

17세기의 조선은 임진·병자 양란의 후유증으로 사회의 구조가 변화하던 시기였다. 말하자면 10살 된 소년 이현일(李玄逸)이 청나라의 침입에 분개해야만 했던 시기였다. 갈암 이현일의 스승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학봉 김성일(鶴峯 金誠一, 1538~1593)은 임진왜란 당시 진주(晉州)에서 순국하였다. 이 같은 한 두 가지 역사적 사실만으로도 갈암이 당시 조선의 시대적 고뇌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없으리라는 전제는 충분하다.

* 경산대학교 동양철학과 교수

1) 「詠牕前梅」, 『葛庵集』권1, “牕前四梅樹 開向黃昏月 欲飲花下酒 奴賊圍城闕”. 이현일이 10살 때 병자호란으로 남한산성이 포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쓴 시라고 한다. 이 글에서의 『葛庵集』은 『한국문집총간』(민족문화추진회 간행) 127·128권에 실려 있는 것을 위주로 하였다.

한편 갈암의 유학사적 학통은 퇴계에 근원하고 있다. 한국유학사의 전개에 있어 퇴계 이황(李滉, 150~1570)의 비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큰 것이 사실이다.²⁾

그런데 퇴계사상(南冥 曹植의 사상을 포함하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지적이 있다.

양현(퇴계·남명)의 사상과 학문적 저술과 經世學 및 문학작품을 살펴볼 때 모화사상에 매몰되어 자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은 희박한 반면, 言必稱堯舜三代와 孔孟程朱라 하면서 중국중심의 세계관에서 자국을 '小中華'로 자처하여 학문과 문학의 세계에도 그것의 모방과 반추에 시종했던 것이다. 퇴계와 남명은 왜 "舜은 어떤 사람이며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顏子의 爲學자세를 갖지 못하고, 전자는 程朱學에 너무 의존하면서 陸王學이 당시 사림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단호히 배격했던 것이며, 후자는 知行合一과 실천을 강조하면서도 '程朱後 不必著述'이란 태도를 견지하였는가?

왜 그들은 중국의 經史와 詩文에 대해서는 博覽強記하면서도 자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관심을 적게 가졌을까?

왜 그들은 『朱書節要』·『宋季元明理學通錄』과 『學記類編』과 같은 해박한 지식과 유창한 필치로서 혼신의 정력을 쏟았는데 반해 그러한 학문적 저술에서 자국의 역사적 전통과 문화적 유산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철저하게 배제하였을까?

이상적인 유교정치나 賢哲君主論을 내세우기 위해서는 중국의 요순삼대와 공맹정주를 引證해야 하겠지만 거기에 앞서 먼저 자국의 처지와 현실, 자신이 일상 밝고 사는 국토, 늘 보고 느낄 수 있는 산천, 또한 조정에서, 관청에서, 향촌에서 현실의 부조리와 민생의 고통, 농촌의 피폐상을 목격하면서도 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제시나 대안 개선은 그렇게도 적었는가?

실학자의 저술에는 道와 器, 綱과 目이 並擧되고 자국의 문헌과 先賢들의 所說을 적극 引證한데 반해 退溪와 南冥의 疏節에는 器보다는 道, 目보다는

2) 퇴계를 정점으로 한 퇴계학파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다음과 같은 언급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조선왕조 사림정치와 유학사에 있어서 정치·사회적으로나 학문적·사상적으로나 크게 기여한 바 있다. 그들은 사림정치(士林政治)의 정착을 위해 포석을 놓고 그 위에 한국성리학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과 동시에 난숙한 유교문화를 꽃 피우게 하는데 주도적인 기능을 수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퇴계의 文集과 저술은 임진왜란 후 日本으로 반출되어 에도시대 유학사상의 주류인 기문학파 및 구마모토학파에게 깊은 영향을 끼치기도 하였다(李樹健, 「退溪와 南冥의 역사적 위상」, 경북대퇴계연구소 제16차 학술대회, 1999.".

綱을 제시함과 동시에 문헌적 전거도 시종 중국 쪽 일변도였으므로 그러한 의식이 후대학자들로 하여금 이른바 편협한 斥邪衛正 쪽에 서게 했던 것이다.

퇴계와 남명의 사상과 학문자세 및 현실대응은 조선후기 경상좌·우도 사림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 퇴계의 出處에 있어 難進易退의 出仕觀과 지나친 謹拙·審慎 자세는 뒷날 退溪學派로 하여금 계속 재야세력으로 밀리게 되는 退嬰性과 消極性을 견지하여 끝내 在地士族으로 만족하게 하는 전통을 남겼다고 볼 수 있다.³⁾

퇴계와 퇴계학파에 대한 위와 같은 지적은 퇴계학파의 전통에 근원한 갈암의 사상을 접근하는 데에도 중요한 시사를 준다.

따라서 '현실'과 '전통'이라는 두 개의 프리즘은 갈암 이현일을 중심으로 한 영해지역의 퇴계학맥을 살피는 중심 기능을 할 것이다. 또한 그 분석 결과는 '퇴계학의 17세기적 재현'이라고 할 수 있는 갈암 성리학의 역사적 의미를 설명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II. 갈암과 영해의 퇴계학맥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영해를 「영해도호부 寧海都護府」라 하여 다음과 같이 적었다.

동쪽은 해안까지 7리, 남쪽은 영덕현(盈德縣) 경계까지 22리, 서쪽은 진보현(眞寶縣) 경계까지 80리, 예안현(禮安顯) 경계까지 1백26리, 북쪽은 강원도 평해군 경계까지 30리이다. 서울과의 거리는 7백7리이다.

본래 고구려의 우시군(于尸郡)이다. 신라 경덕왕(景德王)이 유린(有隣)으로 고치었고, 고려초에, 고려 초에 예주(禮州)로 고치며, 현종(顯宗)은 방어사(防禦使)를 두었다. 고종(高宗)이 위사공신(衛社功臣) 박송비(朴松庇)의 고향이라고 하여 승격시켜 덕원소도호부(德原小都護府)로 하고, 뒤에 올려서 예주목(禮州牧)으로 하였으며, 충선왕(忠宣王) 2년(1310)에 태저목(汰諸牧)을 고쳐 영해부로 하였으며, 본조(本朝)에서는 태조 6년(1397)에 처

3) 앞의 글.

음으로 진(鎭)을 두고, 병마사(兵馬使)로써 부사(府使)를 겸임하게 하였으며, 태종 13년(1413)에 통례에 따라 고쳐서 도호부로 하였다.⁴⁾

영해부는 근대에 이르러 1895년 영덕현과 함께 다같이 군이 되었다가, 영해군은 1914년 영덕군에 통폐합되었다.

영해 지역의 퇴계학맥은 안동 지역의 학봉 김성일을 통하여 재령 이씨(載寧李氏) 영해파(寧海派)로서 갈암 이현일의 부친인 이시명(李時明)과 갈암 형제, 그리고 갈암의 아들인 밀암 이재(密菴 李裁, 1677~1730)로 그 흐름이 이어졌다. 말하자면 영해지역의 퇴계 학맥의 중심은 갈암에 있다고 할 수 있다.

1. 갈암의 생애⁵⁾

덧없는 인간 세상
어느덧 팔 십 년이 흘렀네
평생토록 한 일이 무엇이더냐
하늘에 부끄럽지 않고자 하였을 뿐⁶⁾

이현일의 본관은 재령(載寧)이며 자는 익승(翼昇), 호는 갈암(葛庵) 외에 남악(南嶽)이 있다. 갈암은 인조 5년인 1627년 영해부 인량리(仁良里)에서 태어나 숙종 30년인 1704년 만년의 정착지였던 안동 임하현(臨河縣) 금양(錦陽)에서 돌아왔다.

갈암은 영해 입향조(入鄉祖)인 현령 이애(李瑗)의 현손이다. 이애는 세조·성종 연간의 서울 명환(名宦)이었던 이맹현(李孟賢)의 여섯째 아들로써 16세기 초 숙부 이중현(李仲賢)의 임지를 따라와 영해부의 대성(大姓) 진보 백씨(眞寶

4) 「영해도호부」, 국역 『신증동국여지승람』Ⅲ, (신증동국여지승람 제24권), 민족문화추진회, 1989, 441쪽.

5) 갈암의 생애에 대하여는, 이동환(李東歡) 교수가 『국역 갈암집』 「해제」(민족문화추진회, 1999. 12)에서 갈암의 생애를 5시기로 나누어 정리한 글이 좋은 참고가 된다.

6) 「病中書懷」, 『갈암집』 권1, “草草人間世 居然八十年 生平何所事 要不愧皇天”. 이 시는 갈암이 운명하기 두어달 전인 8월에 쓴 것이라 한다. 우리말 옮김은 이동환 교수의 번역을 빌렸다.

白氏)에게 장가들어 영해에 정착하게 되었다고 한다.

무과를 거쳐 함창·무안·울진 현령 및 경주 판관을 역임한 이애는 서울 집으로 돌아가려다가 그대로 영해에 정착하였다. 변화한 서울의 안목과 감각 그리고 의식에 정통하고 있었던 이애의 집안은 영해지역의 명가(名家)로 성장했다. 이애의 아들 이은보(李殷輔)를 거쳐, 손자 이합(李涵)은 문과에 오르고 5남 2녀로 집안이 번성하였으며 영해와 안동·예안의 사족 명문과 혼인을 맺어 사회적 입지가 상승했다. 그는 학봉 김성일 형제와도 인척간이었다. 이합은 아호가 운악(雲嶽)으로 만권서루(萬卷書樓)를 두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합의 셋째 아들이 바로 갈암의 부친인 석계(石溪) 이시명(李時明, 1590~1674)이다. 이시명은 전취로는 예안의 광산 김씨(光山金氏) 근시재(近始齋) 김해(金垓)의 사위가 되었고, 후취로는 안동의 안동 장씨(安東張氏) 경당 장흥효(敬堂 張興孝, 1564~1633)의 사위가 되었다. 이시명은 정부인 장씨(貞夫人 張氏, 1598~1680)⁷⁾ 사이에서 휘일(徽逸)·현일(玄逸)·숭일(嵩逸)·정일(靖逸)·용일(隆逸)·운일(雲逸) 등을 얻었다.

갈암의 부친인 이시명은 참봉을 지내기도 하였으나 초야에 문혀 학문을 애호한 선비로 알려져 있다. 갈암의 모친인 정부인 장씨는 경북 안동 금계리(金溪里)에서 태어나 경북 영양 석보촌(石保村)에서 타계하였다. 정부인 장씨는 경당 장흥효의 무남독녀로 19세에 이시명에게 시집오기 전까지 『소학』과 『19사』 그리고 강절 소옹(康節 邵雍, 1011~1077)의 상수역(象數易)까지 익혔다고 한다.⁸⁾ 갈암의 학문과 사상의 형성에는 장부인 장씨의 영향이 적지 않은 역할을 하였다. 정부인 장씨는 자녀들을 교육할 때 늘 “너희들이 비록 글 잘한다는 소리가 들린다 해도 나는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착한 행동 하나를 했다는 소리가 들리면 아주 즐거워하여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 정부인 장씨에 관하여는 시문과

7) 갈암의 모친 장씨에게는 만년에 갈암이 산림(山林)으로 불림을 받아 이조판서를 지냈으므로 법전에 따라 ‘정부인(貞夫人)’의 품계가 내려졌다. 이후로 ‘정부인(貞夫人) 장씨’라고 불리게 되었다.

8) 「先妣 贈貞夫人張氏行實記」, 『葛庵集』 권27.

행실기⁹⁾가 남아 있어 그 학문과 덕행을 엿볼 수 있다.¹⁰⁾

갈암의 생애에서 학문과 관련한 것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635년(9세) 『십구사략(十九史略)』을 공부

1638년(12세) 『소학(小學)』을 공부, 천지를 나타내는 방원도(方圓圖)를 그림.

1639년(13세) 『논어』를 공부

1640년(14세) 『손오병법(孫吳兵法)』, 『무경(武經)』, 『장감(將鑑)』 등의 책을 읽음

1644년(18세) 무안 박씨(務安朴氏) 박의장(朴毅長)의 손녀를 부인으로 맞음. 「자경잠(自警箴)」 5편(계태타戒怠惰, 계획완戒戲玩, 계부전戒不傳, 계인동戒言動, 계궁대戒矜大)을 짓다.

1646년(20세) 부친의 뜻에 따라 서울로 가서 과거에 응시하여 소과에 합격하였으나 시제(試題)가 시휘(時諱)를 범했다는 이유로 파방(罷榜)되었다.

1648년(22세) 회시(會試)에 낙방하면서 과거를 단념하였다. 『주역본의(周易本義)』 연구에 몰두. 영주(榮州)로 가서 여헌 장현광(旅軒 張顯光, 1554~1637)의 문인으로 당시 영남 사림의 지도자였던 학사 김응조(鶴沙 金應祖, 1587~1667)를 만남.

1652년(26세) 증형 존재(存齋) 이취일(1619~1672)과 함께 『홍범연의(洪範衍義)』 편찬 계획을 세움

1653년(27세) 병자호란 이후 부친을 따라 영양현(英陽顯) 수비(首比)로 가서 갈암초당(葛庵草堂)을 짓고 거주.

1666년(40세) 영남유림들을 대신해 복제(服制) 시비에 관한 변대왕대비위선왕복제소(辯大王大妃爲先王服制疏)를 지음.

1668년(42세) 부친의 뜻에 따라 서울에서 과거를 보고, 돌아오는 길에 경기도 포천에 들러 경기 남인(京畿南人)의 원로인 용주 조경(龍洲 趙綱, 1586~1669)을 방문함.

1672년(46세) 부인 박씨의 상을 당함

1674년(48세) 부친상을 당함

9) 『貞夫人安東張氏實記』(간행년도 미상, 1904년 중간, 1책, 석판본, 규장각소장)이 그것이다. 이 책은 정부인 장씨의 시문과 행실기(行實記) 그리고 집안의 가보인 보첩(寶帖)의 발(跋)을 엮은 책. 1904년 9대손인 이수병(李壽炳)이 쓴 발문에 의하면 이 책은 현손인 냉천공(冷泉公) 이유원(李猷遠)이 편찬하였고 이 때에 중간하였다고 하였다.

10) 문화관광부는 “조선중기 시문과 서·화에 능할 뿐만 아니라 자녀교육에 귀감을 보임으로써 후세 위대한 어머니상으로 추앙 받았다”는 배경아래 1999년 11월의 문화인물로 정부인 장씨를 선정한 바 있다.

1677년(51세) 명유(名儒)로 인정받아 장악원 주부(掌樂院主簿)로 벼슬길에 오름. 이 때 허목(許穆, 1595~1682)은 왕에게, “근일에 이현일을 보니 참 유학자입니다. 역학에 더욱 조예가 깊다고 하니 장래의 경연에 이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1679년(53세) 『어제주수도설발휘(御製舟水圖說發揮)』를 지어 임금께 올림.

1686년(60세) 『洪範衍義』 완성

1688년(62세) 「울곡이씨논사단칠정서변(栗谷李氏論四端七情書辨)」을 씀.

1689년(63세) 사헌부 장령, 이조 참의, 성균관 재주, 예조 참판, 사헌부 대사헌을 거침.

1690년(64세) 이조참판을 지냄

1693년(67세) 이조판서에 오름

1694년(68세) 숙종 20년에 과거 인현왕후(仁顯王后)와 관련된 상소가 문제되어 함경도 홍원(洪原)으로 유배되었다가 다시 종성(鍾城)으로 이배(移配)되어 위리안치(圍籬安置)되어 종성에서 3년간을 지냄.

1695년(69세) 유배 중 『수주관규록(愁州管窺錄)』을 씀.

1697년(71세) 광양으로 이배됨.

1698년(72세) 섬진강 갈은리(葛隱里)로 옮겨감.

이 때의 일과 관련하여 갈암은, “내가 예전에 칙으로 락포를 엮어서 초암(草庵)을 만들고 이어 갈옹이라 자호(自號)하였는데, 유배되어 남쪽으로 내려오니 우거하는 마을 이름이 또 같은(葛隱)이었다. 내가 내심 괴이쩍어, ‘인간 만사는 모두 미리 정해지는 것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였다. 마침 권동인(權同人) 천장(天章)이 찾아왔기에 내가 짧은 글로 이 사실을 기록해 주길 청했더니, 천장이 드디어 ‘적요(寂寥) 운운’하는 몇 줄의 글과 칠언 절구 한 수를 지어 주기에 그 시에 차운하여 그 뜻에 답하였다”라고 하여 다음과 같은 시를 한 수 남겼다.

띠 이영으로 칙으로 묶고 우연히 지은 초암 이름

훈업이라 어찌 위남을 사모한 적이 있었으랴¹¹⁾

쓸쓸한 신세 지금은 몸이 도리어 누가 되니

어찌 뇌우가 상담에서 일기¹²⁾를 바랄 수 있으랴¹³⁾

11) 훈업이라……있었으랴: 위남은 당(唐)나라 이극용(李克用)이 반란군 황소(黃巢)와 하루 세 번 싸워 세 번 다 승리했던 곳이다. 여기서 갈암은 ‘이극용의 훈업 따윈 안중에도 없고 더 원대한 포부를 지녔었다’고 슬회하고 있는 것이다. 갈암(葛庵)이란 호 자체가 촉한(蜀漢)의 제갈량(諸葛亮)을 지향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니와 갈암의 시에는 제갈량을 흠모했음을 알 수 있는 시가 여러 번 보인다. (『국역 갈암집』1, 101쪽의 주359 인용)

12) 뇌우(雷雨)가 상담(湘潭)에서 일기: 찬축(竄逐)된 죄인의 사면을 뜻한다. 『주역』 해괘(解卦) 상전(象傳)에 “뇌우가 일어나는 것이 해(解)이니 군자가 이를 본받아

1700년(74세) 3월 고향에 돌아와 선산에 성묘한 뒤 4월 안동 임하현의 금소역(琴詔驛)에 우거함.

1704년(78세) 타계

2. 영해지역의 퇴계학맥

퇴계의 직전(直傳) 제자 가운데 대표적 인물의 하나가 학봉 김성일이다. 학봉은 비록 당대에는 하나의 학맥을 형성할 여유가 없었다. 그러나 학봉의 직전 제자인 경당 장홍효의 학문이 갈암 형제로 이어지면서 안동부의 임하현과 일직현이 영해지역과 연계되어 퇴계학맥의 커다란 봉우리를 형성하게 되었다.

말하자면 영해지역의 퇴계학맥이 형성된 것은 학봉의 학문을 경당 장홍효가 그 연결하면서 가능하게 된 것이다.¹⁴⁾ 또한 그 연결의 결정적 촉매 역할을 한 것은 경당의 무남 독녀인 정부인 장씨였다. 곧 정부인 장씨가 석계 이시명과 혼인을 맺으면서 석계는 자연스럽게 경당의 학문과 접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자제들인 갈암 형제들은 모친과 외조부인 경당을 통하여 학봉의 학문을 전수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갈암 형제들은 자신들의 외조부인 경당이 학봉의 학문을 이어 받았음을 말하고 있다. 곧 존재 이휘일은 자신이 쓴 「경당선생행장」에는,

학봉 김선생을 스승으로 섬겨 학문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한결같이 이치를 밝히고 몸을 닦는 것으로써 요체를 삼았다. 그리하여 마침내 과거공부를 포기하고, 『소학』과 『근사록』을 존신하고, 여러 경전에 널리 통하였으며, 정밀하게 사색하고 힘써 실천했으며 분연히 일어나 과감하게 구도(求

허물과 죄를 관대히 용서한다.”하였다. 뇌우는 우뢰와 비이다. 상담(湘潭)은 초(楚)나라 충신 굴원(屈原)이 찬족되어 거닐다가 빠져 죽은 곳이다. (『국역갈암집』1, 101쪽, 주361, 인용)

13) 『갈암집』 권1, “苦茅束葛偶名庵 勳業何曾慕渭南 牢落如今身反累 豈望雷雨起湘潭”.

14) 퇴계학과 속에서 학봉의 학문이 어떻게 계승 발전하게 되었는가는 李完載, 「嶺南學派에 있어서 鶴峯先生의 位置」, 『鶴峯의 學問과 救國活動』, 鶴峯金先生紀念事業會, 1993, 참조.

道)로써 자신의 임무로 삼았다. 김선생이 자주 이르기를 “이 아이는 학문 하는데 정력(定力)이 있으니 훗날에 크게 성취함이 있을 것이다. 나는 후생 가운데 이 사람을 얻었노라”고 하였다. 김선생이 몰한 후에 다시 서애 유선생을 좇아 공부하여 그 조예가 더욱 깊었다.¹⁵⁾

라고 하였고, 갈암은 자신이 쓴 글에서,

우리 외조부 경당공은 어릴 적부터 학봉 문하에서 쇄소로써 받들며 직접 친절한 가르침을 받았다.¹⁶⁾

이처럼 퇴계의 학문이 학봉과 경당을 거쳐 영해지역의 갈암 형제로 이어져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퇴계학맥의 영해지역 전승을 퇴계 → 학봉 → 경당 → 갈암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있다.¹⁷⁾ 왜냐하면 경당이 타계한 것이 1633년인데 이 때 갈암은 6세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퇴계의 학문의 영해지역 전승은 퇴계 → 학봉 → 경당 → 존재 → 갈암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경당이 타계할 당시 존재의 나이는 13세였고, 실제로 갈암도 그의 형인 존재 이휘일이 경당에게 학문을 배운 사실을 분명하게 적고 있다.

일찍이 금계리에 가서 경당선생에게서 수신과 칙행(飭行)의 요체와 무극태극의 설을 들었다. 돌아온 후에 장선생이 또 편지를 내어 『대학』의 격물치지 성의 정심의 방법과 『맹자』의 수심양성(收心養性)의 뜻을 일러왔다. 이에 혼연히 나아갈 바를 알고 날로 역경(易經)과 성리(性理)의 서(書)를 가지고 문을 닫고 공부하였는데 남들이 혹 비웃어도 중단하지 않았다.¹⁸⁾

경당의 학문에서 눈에 띄는 대목의 하나는 서애(西厓) 유성룡(柳成龍, 1542~1607)과 대화 중에 “허(虛)와 실(實)은 대립하나 이(理)는 대(對)가 없으므로 허를 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¹⁹⁾라는 것이다. 비록 짧은 내용이지만 경당의 성리학의 주리적(主理的) 특성을 보여주는 단면이라 할 수 있다.

15) 「敬堂先生行狀」, 『存齋集』 권6.

16) 「書外大父敬堂張公遺集後」, 『葛庵集』 권21.

17) 李完裁, 앞의 글.

18) 「先兄將仕郎 慶基殿參奉存齋先生行狀」, 『葛庵集』 권26.

19) 「敬堂先生行狀」, 『存齋集』 권6.

한편 퇴계학의 영해지역 전승에서 존재 이휘일의 역할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퇴계학을 사상적 측면에서 크게 일으킨 것은 갈암이다. 이러한 면에서 퇴계의 학문의 영해지역 전승을 퇴계→학봉→경당→갈암으로 보는 것도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갈암 이후 시대의 퇴계학 전승이 갈암으로부터 말미암는다고 할 때 갈암이 퇴계학의 영해지역 전승의 중심점에 놓여지게 되는 것이다.

영해지역에서의 퇴계학맥은 갈암 문하에서 수많은 제자들이 배출됨으로서 다시 각 지역으로 분파 되어 나갔다.²⁰⁾ 그런데 퇴계→학봉→경당→(존재)→갈암으로 이어진 퇴계학맥의 큰 줄기는 갈암 이후에, 갈암→밀암 이재→대산 이상정(大山 李象靖)→손재 남한조(損齋 南漢朝)→정재 유치명(定齋 柳致明)→서산 김홍락(西山 金興洛)으로 연결되었다.²¹⁾ 대산은 밀암의 외손으로서 안동출신이며 정재 유치명, 서산 김홍락도 안동 출신이다. 이렇게 볼 때 안동지역의 퇴계→학봉으로부터 영해지역의 갈암으로 이어졌던 퇴계학맥은 갈암과 밀암 부자 이후로는 그 맥이 다시 안동지역으로 회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어쨌든 갈암으로부터 발원한 영해지역에서의 퇴계학맥은 실질적으로는 그의 셋째 아들 밀암 이재(密菴 李裁, 1657-1730)로 이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밀암은 총명하여 어려서부터 부친 갈암은 물론 조부 이시명과 조모 정부인 장씨의 칭찬과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밀암이 13세 되던 설날 아침에 자경잠(自警箴)을 짓자 정부인 장씨는 시를 읊어 이를 칭찬하였다.

20) 지역적으로 분파 된 갈암의 문인은 영남일원을 중심으로 각 처에 걸쳐 있다. 이를 지역분포로 정리하면 안동 72인, 봉화 27인, 영해·영양 각 19인, 진주 17인, 영주 13인, 영천·의성 각 12인, 서울·성주 각 11인, 상주 10인, 예천·칠곡 각 8인, 밀양 6인, 경주·대구 각 5인, 거창·선산·순흥·원주·진보·함안 각 4인, 고령·군위·산청 각 3인, 용궁·창원·청도·충주·현풍 각 2인, 기타 43인 이다 (『葛庵全集』 錦陽及門錄, 驪江出版社, 1986. 權五榮, 「鶴峯 金誠一과 安東地域의 退溪學派」, 『退溪學派의 地域的 展開』, 慶北大 退溪學研究所 제 17차 學術大會 발표 논문집, 2000. 5, 재인용).

21) 李完裁, 앞의 글.

새해에 스스로 경계하는 글을 지으니
 너의 뜻이 벌써 오늘날 사람 같지 않구나
 동자가 벌써 학문을 향해 나아가니
 가히 유자(儒者)의 참됨을 이루리라

그러나 밀암이 38세 때 부친 갈암이 귀양길에 올랐다. 그 후 8년만에 풀려날 때까지 부친이 홍성, 중성, 광양으로 옮겨다니는 때마다 밀암은 따라 다니며 늘 옆에서 모셨다.²²⁾ 인생에서 한창 왕성하게 활동할 나이에 밀암은 곤경에 빠진 부친을 위해 자신의 생활을 희생하였다. 그리고는 48세 때는 부친상을, 49세 때는 부인상을 당하였다. 이어 51세 때는 넷째, 다섯째 아들을 잃었으며 52세 때는 맏아들을 잃는 비운을 당하였다.

조선에 이상한 사람 바닷가에서 태어났으니
 성은 이요, 이름은 재, 자는 유재(幼材)일새
 뜻은 있으나 재주 없고, 또 때를 못 만났으니
 바위틈에 초라함이 정말로 마땅하네
 빛나리로다 내가 차고 있는 것 앞 어른들을 쫓아 갈거나
 즐기리로다 나의 즐거움 또 무엇을 구할 것인가

위의 시는 밀암이 56세 때 자신의 삶과 희망을 적은 것이다. 밀암의 일생이 비록 화려하고 순탄하였다고 할 수 없지만 학문의 열정은 언제나 식을 줄 몰랐다. 밀암은 당대에 영남의 저명한 성리학자들이었던 병와 이형상(瓶窩 李衡祥, 1653~1733), 창설재(蒼雪齋) 권두경(權斗經, 1654~1726), 식산 이만부(息山 李萬敷, 1664~1732), 청대 권상일(淸臺 權相一, 1679~1760) 등과 사귀면서 학문세계를 넓혀갔다. 식산과 창설재는 갈암의 제자였다. 특히 창설재 권두경은 퇴계의 문인록인 『도산급문제현록(陶山及門諸賢錄)』의 최초 작성자로 알려져 있으며²³⁾ 밀암도 이 문인록 작성에 일조를 하였다. 밀암의 성리설은 퇴계

22) 밀암은 부친의 유배길을 따라 다니며 많은 것을 기록하여 책으로 엮어냈는데 그것이 『창구객일록(蒼狗客日錄)』이다.

23) 『陶山及門諸賢錄』의 간행과정에 대하여는, 김종석의 『『陶山及門諸賢錄』의 集成과 刊行에 관하여』(퇴계연구소, 17차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0년 5월) 참조.

의 이발설(理發說)과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을 그대로 계승하였다.

밀암 이후로 영해출신의 유학자로 주목할 만한 인물로는 청백리로 이름난 남구명(南九明)의 손자인 활산 남용만(活山 南龍萬, 1709~1784)이다. 활산 남용만은 종조부 남제명(南濟明)으로부터 학문을 배웠는데 남제명은 갈암의 문도였다. 말하자면 활산은 갈암의 재전 제자인 셈이다. 남구만은 경주에 거처하면서 활약하였는데 당시 영남에서는 “북지대산 남지활산(北地大山 南地活山)”이란 말이 있었다. 이것은 안동의 대산 이상정과 경주의 활산 남용만을 두고 한 말이다. 남용만은 75년의 생애를 평생 초야에 묻혀 학문활동에만 전력하였다. 그는 경학에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경세치용의 학문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졌다. 실학적 학풍을 지녔던 18세기의 뛰어난 문신 이계 홍양호(耳溪 洪良浩, 1724~1802)가 경주 부윤으로 왔을 때 남용만의 학덕을 익히 듣고 있던 터라 남용만을 찾아가 만났다. 홍양호는 남용만의 학덕에 크게 느낀 바 있어 경주 활산 남쪽에 덕계초당(德溪草堂)을 지어주어 남용만의 학문이 인근에 널리 퍼지게 하였다. 남용만은 성리학뿐만이 아니라 불교에도 남다른 조예를 이루고 새로이 일기 시작한 18세기의 실학적 학풍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Ⅲ. 갈암의 사상

1. 성리학적 특징

1) 퇴계학의 부흥

갈암의 성리학 논리체계는 실상 퇴계의 것을 그대로 이어 받았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²⁴⁾ 갈암이 주리(主理)적 입장에서 이(理)와 기(氣)의 엄격한 분별

24) 갈암의 퇴계학 계승과 관련하여, “퇴계에 대한 갈암의 존모는 마치 신을 대하는 것 같았다”는 지적(李丙燾, 『韓國儒學史』, 亞細亞文化社, 1987, 288쪽)은 시사하는

을 요구한 것은, 퇴계가 이·기의 '불리성(不離性)'보다는 '부잡성(不雜性)'의 입장에 치중한 논리를 전개한 것²⁵⁾과 다를 바 없다. 또한 갈암이 사단과 칠정의 분개가 현상적 측면 만이 아닌 그 '소종래'에서 부터 다르다고 한 것은 퇴계의 '호발설'에서 나타났던 사고 방식²⁶⁾을 계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갈암의 퇴계학 계승과 관련하여 빼놓을 수 없는 학설은 '이유동정설(理有動靜說)'이다.²⁷⁾ 그는 주자와 황간의 설을 인용하여 퇴계와 같이 이(理)에 동정이 있음을 주장한다.

갈암은 이(理)의 '허무공적'성을 부정하고 만화의 근원성을 강조한다. 이것은 그가 이(理)의 속성에 절대성과 함께 실제적 능동성을 부여하고자 하였던 의도로 보여진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행위의 도덕적 실천은 당위를 넘어서 필연의 과정이라는 측면을 부각시키려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칠정과 인심은 인욕에 근거하며 사단과 도심은 천리에 근원 한다고 한다.²⁸⁾ 천리에 근원한 사단과 도심의 '자발성' '능동성' '실천성'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이(理)의 속성이 '허무공적'해서는 안되며 만화의 근원이 되어야 함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갈암 성리학의 이러한 면은 도덕적 인간행위의 필연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던 퇴계의 '이동설'과 '호발설' 이론의 출발동기²⁹⁾와 다름이 없다고 하겠다.

바가 있다. 이러한 지적은 갈암의 퇴계학에 대한 자세가 합리적 학문 이해의 단계를 넘어서 신념의 차원에 있었다는 의미로 받아 들일 수 있다. 또한 이것은 앞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선성리학의 정통론을 재흥하여 퇴계학을 정통으로 보고 이에서 벗어나는 성리설은 이단으로까지 간주하고자 하였던 학문 자세와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여진다.

25) 퇴계의 이같은 입장에 관하여는, 채무송, 앞의 글, 58-60쪽 참조.

26) 퇴계의 사단·칠정의 分對는 〈所主〉 혹은 〈所重〉 에서가 아니라 〈所從來〉 라고 하는 근원에서부터 그것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며, 이 점에서 퇴계의 입장을 〈互發說〉 이라고 말한다는 지적(李東熙, 「朱子學의 哲學의 性格과 그 展開樣相에 관한 研究」, 成均館大學校 박사학위논문, 1989, 163쪽)은 갈암의 사칠론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27) 갈암의 理有動靜說에 관한 언급은, 갈암집, 권18, 16우-17좌 에 보인다.

28) 『葛庵集』 권11, 12우-좌, 答李粹彦別紙.

29) 퇴계의 '理動說'이 가치론적 입장에서 理氣를 해석하였고, '互發說'의 의도가 人欲으로부터 天理의 우월성 확보에 놓여져 있다는 분석(李東熙, 앞의 글, 161 ~ 163 쪽)이 이를 말해준다.

갈암은 이처럼 철저한 퇴계설의 추종을 통하여 퇴계학을 부흥시키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 그는 퇴계설의 절대화를 지향하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현실의 인간적 삶 속에서 도덕적 인간의 실현에 그 철학의 지향점을 설정해 놓았다고 할 수 있다. 곧 갈암은 성리학의 도덕적 인간 구현이라는 궁극적 목표의 '실천'을 위한 '길'에 있어서 오직 '퇴계'라는 '외길' 만을 인정하고 다른 길은 부정하였던 것이다.

2) 퇴계학의 정통성 모색

갈암 학맥에서 '퇴계문인록'이 처음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은 우연적인 것은 아니다. 그것은 갈암이 퇴계학에 대한 부흥과 퇴계학 정통성을 추구하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한편 갈암 성리학의 진수는 주로 60이후의 저술에서 나타났다. 이른바 62세 때의 「울곡이씨논사단칠정서변」과 69세 때의 「수주관규록」이 그것이다.³⁰⁾ 갈암은 울곡의 사단칠정론 비판하고 퇴계설을 옹호하였다.

갈암은 사단과 칠정의 엄격한 분별을 말하였다. 곧 칠정은 성(性)의 욕(欲)이지만 형기(形氣)에 접촉하여 대상과 맺어져 생겨나는 것이고, 사단은 기를 타고 발동하는 것이지만 인의예지(仁義禮智)의 성이 직출(直出)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단과 칠정은 그 출발점(所從來)에 있어서 주(主)로 하는 바가 달라서 각각 스스로 그 근본이 된다는 것이다.³¹⁾ 이렇게 갈암이 사단과 칠정을 엄격하게 분

30) 갈암 年譜에 의하면, 「栗谷李氏論四端七情書辨」(이하 '栗谷四七書辨'이라 약칭한다)은 갈암이 62세 때인 숙종 14년 8월에 완성된 것으로 되어 있다. 「愁州管窺錄」은 갈암이 69세 때인 숙종 21년 겨울에 완성되었다고 적고 있다. 「수주관규록」의 내용은 주로 朱子(朱熹, 1130~1200) 이후 여러 유학자들의 설에 대한 주자설과의 부합성 여부를 논한 것이다. '울곡사칠서변'은 울곡이 성혼(牛溪 成渾, 1535~1598)에게 답서한 사칠론변을 19개조로 나누어 재론한 것이다.

31) 『葛庵集』 권18, '울곡사칠서변', 2장 오른 편(이하 2-좌, 우로 표시). 한편 한국문집총간의 『葛庵集』 영인본(권127-128, 민족문화추진회, 1994) 권두에 실려 있는 설명에 따르면 『葛庵集』 초간본이 나온 것은 1810년이다. 그것은 도중에 경상도 관찰사 金會淵의 狀啓에 따라 毀板火書되었고, 현존본은 1909년에 중간한 목판본으로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고 한다.

별하는 것은 다름 아닌 주자설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것은 '사단은 이가 발한 것이고, 칠정은 기가 발한 것(四端是理之發, 七情是氣之發)'³²⁾이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퇴계의 '사단이발기수 四端理發氣隨, 칠정기발이승 七情氣發理承'³³⁾도 중요한 논거가 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갈암 성리학에서는 사단과 칠정의 분개, 이기의 분별, '주리'의 입장에 이어 인심과 도심의 분별에 따른 인심·도심의 이원설, 그리고 사단은 도심(道心)이며 칠정은 인심(人心)이라는 논리³⁴⁾를 전개하였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다. 그런데 갈암의 이러한 성리학에는 몇 가지 주목할 점이 있다.

첫째는, 갈암의 성리학 논리 속에는 이원론적 관점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사단과 칠정의 분개를 주장하면서 양자는 그 '소종래(所從來)'에서부터 다르다고 하였다. 또한 이·기(理·氣)는 결코 다르다는 것을 강조한 점, 인심·도심의 근원이 다르다는 이원설(二源說) 등은 모두 이원론적 관점으로 일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갈암이 주자학에 철저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조선성리학자들 대부분이 주자학의 범위 내에서 논리를 전개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갈암의 경우에는 자의적인 해석을 가급적 용납하지 않고 주자가 언급한 내용과의 부합 여부에서 준거를 찾고자 하였다는 점이다.³⁵⁾ 갈암의 주자학 지향은 엄밀성의 단

32) 이 구절은 『朱子語類』 권53에 나타나 있다. 특히 이 부분은 그 기록의 신빙성 여부로 인하여 조선성리학계의 논란이 되었다. 곧 각자의 입장 차이에 따라 신뢰와 의심을 표명하였다. 퇴계가 이 기록의 신빙성을 표명한 대표적인 인물이라면, 울곡은 기록에 의문을 제기한 대표적 인물이다.(蔡茂松, 「退栗性理學의 比較研究」, 成均館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71, 28쪽)

33) 退溪의 四端七情論은 理氣互發說이며 그 주장에 있어서는 理氣不相雜을 강조하여 理의 醇然性을 드러내고자 하였던 사실을 널리 알려진 바이다.(李完裁, 「理氣互發說의 儒家傳統思想的 照明」, 『退溪學報』 제20집, 퇴계학연구원, 1978, 196~199쪽, 참조)

34) 갈암은, “喜怒는 人心이며, 惻隱·羞惡·辭遜·是非는 道心이다”는 말을 근거로 삼아 주자도 사단·칠정을 인심·도심에 분속시켜 상대적으로 말하였다고 주장하였다(『葛庵集』 권18, 2-좌, 울곡사칠서변).

35) 갈암은 주자와 퇴계의 학설에서 이론적 근거를 찾았음은 기존 연구에서도 이미 언급된 사실이다. 이를테면 금강대, 앞의 글(234쪽)에서는 이 점을 “그가 울곡의 사칠론을 비판하면서 논리적 분석에 주력하기 보다는 程子·朱子와 퇴계의 언설을 이끌어 오는 데 치중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라고 지적한 바 있다.

계를 지나 주자학 정통론의 입장을 재흥(revival)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곧 그의 율곡 이론에 대한 비판은 '성리학의 철학적 논변의 단계에서 나아가 도학(道學)의 벽이단론적 단계에까지 이르고 있다'³⁶⁾ 는 사실이다.

퇴계는 주자학 정통론의 확립과 유학 내에서의 이단(양명학) 배척에 노력하여 그 후 조선유학사의 흐름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 갈암이 퇴계의 학풍을 받았음은 주자학 정통론의 입장을 견지하는 데에서도 확인된다. 그런데 퇴계가 같은 유학 내에서의 정통과 이단문제를 제기한 반면에, 갈암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같은 성리학 혹은 같은 주자학 내에서의 정통과 이단의 문제를 들고 나왔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주자 그리고 퇴계를 주자학(성리학)의 정통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성리학 이론이라고 하더라도 주자와 퇴계의 본 뜻에서 이탈되는 주장은 이단으로까지 간주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³⁷⁾ 이처럼 그의 성리학에는 주자학 정통주의(좁은 의미에서는 조선유학의 정통을 퇴계로 인정하고, 퇴계설에서 벗어나는 것은 이단으로까지 부정하고자 하는 입장) 주의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 같이 '주자 → 퇴계'로 이어지는 조선유학의 정통성 인식은 갈암 성리학의 제일 큰 특징으로 보여진다.

2. 경세론적 특징

갈암의 경세학 나아가서 영남학파의 경세학을 이해하기 위한 필독서로 평가받는다.³⁸⁾ 저술이 다름 아닌 『홍범연의(洪範衍義)』이다. 갈암 연보, 효종 3년(壬

36) 금장태, 앞의 글, 234쪽. 여기에서는 갈암이, 맹자가 楊朱와 墨翟을 변칙했던 것이나 송대 주자학자가 소동파의 학(蘇學)·육상산의 학(陸學)·禪學에 대해 변칙하였던 입장과 동일하게 율곡을 비판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葛庵集』 권12, 26좌-28좌, 答申明仲)을 예로 들고 있다.

37) 『葛庵集』 권12, 27우, 答申明仲, “若失朱子退溪之本旨, 則雖謂之離正而入於邪, 不爲過矣”(이 편지 글은 1699년에 쓰여진 것으로 되어 있다. 이 해는 갈암의 나이 73세로 2월에 방귀전리(放歸田里)된 때이다. 그렇다면 이 편지 글은 2월 이후에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갈암은 말년에 이르러 더욱 더 주자학과 퇴계학을 중심으로 조선유학의 정통성 확립을 고집한 것으로 보여진다.

38) 宋贊植, 「洪範 衍義 解題」, 『韓國學論叢』 5집, 國民大, 韓國學研究所, 1982, 85쪽

辰), 26세 조에 의하면 그는 『홍범연의』의 찬집(纂集)을 그의 형 이휘일(存齋 李徽逸, 1619~1672)과 의논하여 그 조목을 대략 정하였다고 적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그가 젊어서부터 정치·경제 등 사회현실에 지극한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사회현실 문제의 해결책 모색이 『서경』 「주서」에 나오는 〈홍범〉에서 찾음으로써, 고전적인 선진유학 정신의 부활이라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1) 경제론의 이론적 배경

갈암 경제론의 이론적 배경을 보여주는 짚막한 자료로 이수광(芝峯 李睟光, 1563~1628)의 '도(道)'론³⁹⁾에 대한 비판의 글이 있다. 원래 이수광의 '도'론에 대한 비판은 갈암이 처음은 아니다. 이수광과 같은 해에 태어나 활약한 성리학자 정경세(愚伏 鄭經世, 1563~1633)에 의해 지봉의 '도'론이 비판된 바 있다.⁴⁰⁾

우복은 지봉의 견해와 달리 정통 성리학자의 학문관과 진리관을 견지하고 있었다. 특히 우복은 진리나 학문에는 당위적 법칙이 매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당위적 법칙이 배제된 지봉의 관점은 장자나 불교의 견해와 동일한 것으로서 유가(儒家)의 설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글은 그대로 『洪範衍義』, 1982년, 경문사 영인본의 해제로 실려 있다). 이 글에서는 갈암 뿐만이 아니라 『洪範衍義』의 共著者로 알려진 그의 형인 存齋 李徽逸(1619~1672)에 대한 소개와, 『洪範衍義』의 編纂過程과 內容을 상세히 적어 놓았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洪範衍義』에 대한 소개와 분석은 생략하기로 한다.

39) 여기에서 언급되는 이수광의 '도'론은 그의 저서 「采薪雜錄」(『芝峯集』 권24)에 담겨져 있다. 그는 이 글에서 '實用'적 관점에서 학문의 최종적 목표인 道의 성취를 주장하였다.

40) 愚伏 鄭經世에 의한 李睟光의 '道'론 비판은 '道'론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采薪雜錄」 전반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이다. 곧 鄭經世는 「李芝峯采薪錄辨疑」「再辨」「三辨」(『愚伏集』 권14) 등 세 번의 변론을 통하여 李睟光의 학문관 전반에 대해 비판을 하였다.

갈암은 우복의 견해에 동의를 표시하면서도 우복의 주장에 불만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곧 그는 지봉의 학설을 장자와 불교의 영향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진리나 학문에 당위적 법칙이 매개되어야 한다는 우복의 주장을 일단 수용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진리란 '인간의 행위를 기다린 뒤'에 성립되는 것이 아님을 역설하였다. 그가 우복의 견해에 만족하지 못한 것도 바로 이 점 때문이다. 그는 진리의 성립여부에 인간의 개인적인 행동이나 판단(思)은 전혀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명백히 하였다. 따라서 갈암이 생각하는 진리란 인간의 경험을 초월하여 선형적으로 있는 것이라 말 할 수 있다.

따라서 갈암의 경세론에서는 새로운 이론의 창출이라는 측면이 나타날 가능성보다는 이미 주어진 틀(과거로부터 형성된 모델)의 현실적 투영이라는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그가 사회적 현실과 실천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도⁴¹⁾ 그 해결 방법론으로 의지한 것이 고전적 경세론이라고 할 수 있는 '홍범'이었던 것은 당연한 귀결로 보여진다.

2) 경세론의 전개

갈암이 20대 젊어서부터 경세론에 관심이 있었음은 『홍범연의』의 저술이 시작된 시기에 의해서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 그의 경세론에 관한 관심은 중년을 거쳐 만년에 이르러서도 끊이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있다. 곧 그가 40대 초반인 1668 년경에 제시한 정치론⁴²⁾이나 60대인 1691년에 쓰여진 「진 군덕시무육조 소 進 君德時務六條疏」⁴³⁾ 등은 그의 정치론을 잘 보여 주는 것이다. 또한 그의

41) 갈암은 조정에 있을 때 '施務 6조'의 개진이나 鄉約法과 選士法의 시행을 요청하는 등 정치·사회 문제에 적지 않은 관심을 기울였다.

42) 『葛庵集』別集, 卷3, 雜著에 「政說」이라는 제목의 글로 실려 있다. 여기에 따르면 이 글은 갈암이 1668년 경 백성들의 고통을 직접 눈으로 보고 정치방법론(治道)을 여덟 가지 조목으로 나누었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은 다만 〈論廣儲蓄〉, 〈論正經界〉, 〈論定軍制〉 등 세 조목만이 전한다.

43) 『葛庵集』 권4.

나이 60대인 1688년 쓴 것으로 알려진 「홍범연의서」나 「둔암유공수록서 遁庵柳公隨錄序」 등에도 갈암의 경세관이 잘 피력되어 있다.

갈암은 「정설」에서 “왕은 백성을 하늘로 여기고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여긴다”⁴⁴⁾라고 함으로써 정치에 있어 민생에 대한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그는 “사창의 조례는 주자전서에 갖추어져 있다”⁴⁵⁾라고 함으로써 그의 경세관에 대한 인식이 성리학적 세계관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진 군덕시무육조소」에서 제시된 시무에 관한 여섯 가지 조목은, ‘진덕(進德)’·‘입지(立志)’·‘변통(變通)’·‘택임(擇任)’·‘육재(育材)’·‘석시(惜時)’ 등이다. 여기에서도 갈암은 그의 주장의 논거로써 유교 경전과 함께 특히 정자와 주자의 말을 자주 인용함으로써 정통 주자학자의 면모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변통을 말하면서도 그 논거는 여전히 『주역』, 『시경』 과 정자, 주자의 말이었다.

그러나 「둔암유공수록서」에 보이듯이 갈암은 당시 사대부들이 경세유용의 학문이 있음을 알지 못함⁴⁶⁾을 날카롭게 지적하였다. 이어서 그는 당시 학문경향의 폐단에 대해, “학문을 하는 자들도 언어와 경문만 모으고 외워 과거시험에 관련된 이익만을 취할 줄 알며 조정에서 벼슬하는 자는 현실에 안주하고 옛 것을 지키며 간략하고 비루하여 넓은 습관을 버리지 못한다”⁴⁷⁾라고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이것으로 볼 때 갈암이 당시 지식사회가 처한 문제점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있었으며 동시에 사회의 현실문제에 깊은 관심을 지니고 있었음은 의심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갈암이 17세기 당시 조선사회의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는 시대정신을 일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갈암의 경세론이 의지하고 있는 논거는 유교 고전이며 선진 유학정신이었다. 그의 경세론이 최종적으로는 『홍범연의』에 집적되어 있다. 그는 유교의

44) “王者以民爲天，民以食爲天”

45) 앞의 글, 〈論廣儲蓄〉, “其社倉條例，具在朱子全書”

46) 『葛庵集』 권 20, 「遁庵柳公隨錄序」, “自是以來世益下 士大夫不復知有經世有用之學”

47) 앞의 글, “遊於學者，徒知綴緝言語，誦讀經文，取決科之利，仕於朝者，不過安常守故，簡陋因循，爲目前之計。”

고전인 『서경』 「홍범」에 대하여, “홍범의 글은 천지 사이의 사물을 포괄하고 다 채워 실지로 수신하여 예의에 맞게 실행하고 귀신을 섬기며 사람을 다스려 변화가 이치에 맞고 재물을 이루니, 대경대법이 있는 곳이다”⁴⁸⁾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그는 『홍범연의』를 완성함에 ‘경문에 근본하여 그 기강을 세우고 있음’⁴⁹⁾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그의 경세론의 총결산⁵⁰⁾인 『홍범연의』의 이론적 근거가 『서경』 「홍범」의 글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로써 볼 때 그는 비록 성리학 이론에 있어서는 정통유학자로서의 면모를 새롭게 세우는데 노력을 하였지만, 경세론에 있어서는 성리학보다는 선진유학의 실천유학 정신에 기울어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그는 경세론에 있어서 만큼은 17세기 조선 성리학자들이 지닌 비경세적인 사회인식의 타파를 시도하였으며 그 방법론은 선진유학 정신의 재건에 두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IV. 맺음말

17세기의 조선유학계는 여전히 성리학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지만 그 이전 시기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성리학적 세계관과 가치관이 동요되기 시작한 것도 사실이다. 그 직접적 이유로는 임진·병자의 양대 전란 이후 조선 내부의 정치·사회·경제적 변동에 기인한 의식의 변화가 초래한 면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48) 『葛庵集』 권20, 「洪範衍義序」, “洪範之書, 包括盡盈天地間物事, 實修身踐形, 事神治人, 變理財成, 大經大法之所在.

49) 「洪範衍義序」, “以就此篇, 蓋本之經文以立其綱.”

50) 갈암은 「洪範衍義序」를 종결하면서, “是則欲爲修己治人之學者, 亦將慨然有感於斯, 而八條設教之意, 或庶乎其想像彷彿於數千百載之下矣.” 라고 하였으니 『洪範衍義』가 修己治人이라는 선진유학의 경세론을 새롭게 재건한 것임을 은근히 자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하나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은 갈암이 그의 경세론을 선진유학의 모토(motto)인 ‘修己治人’으로 언명하였다는 점이다. 이것은 조선실학의 집대성자로 평가받는 茶山 丁若鏞(1762~1836)이 그의 실학사상을 스스로 ‘修己治人之學’ 이라고 역설한 점을 상기할 때 그 정신적 맥락에 있어서는 상호 일정한 연관성을 부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 양명학과 서학의 유입에 따른 사상계 내부의 갈등도 무시할 수는 없었다. 결국 퇴계학맥을 이어간 갈암이 살았던 17세기는 전통적인 성리학자들에게 세계관과 가치관의 재정립에 대한 중대한 물음을 던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 시기에 전통의 고수라는 입장에서 이 대응에 가장 앞장섰던 인물이 다름 아닌 영해지역출신으로 퇴계학맥을 계승한 갈암이었다. 그것은 그가 적극적으로 주자학 정통주의와 퇴계학 부흥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설명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갈암이 주자학 나아가서 퇴계학의 정통주의를 모색한 것은, 순수한 사상사적 관점으로 이해한다면, 당시 이단사설(異端邪說)로 받아 들여졌던 양명학이나 서학의 영향과 주자학 권위어의 도전에 따른 전통유학의 동요와 갈등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소명의식의 발로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연유에서 그는 정통주의를 고수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또한 갈암은 성리학 가운데에서도 그의 지역적 학문 배경을 이루어 온 퇴계학에 의존하여 그 정통성의 '뿌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암은 경세론에 있어서는 공맹(孔孟) 선진유학의 경세정신을 재건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갈암의 성리학에는 주자학이나 선진유학 이외의 다른 사상의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다. 말하자면 그의 성리학에서는 양명학이나 서학의 영향은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전통적 사상인 불교나 도가의 흔적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러한 점은 정통론을 고집하는 그의 성리학적 특징으로 볼 때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아니 오히려 갈암은 주자와 퇴계 그리고 공맹사상에 철저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던 것이다. 한편 그것은 전통적인 퇴계학의 주리론에 입각한 도덕 이상론의 계승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영해지역을 중심으로 한 갈암의 퇴계학은 '퇴계학의 17세기적 재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의 갈암 성리학 계승자들도 갈암의 이러한 특징을 이어갔다고 할 수 있다. 곧 18세기의 밀암 이재와 대산 이상정 그리고 19세기의 정재 유치명에 이르기까지 퇴계 - 갈암 성리학의 특징은 큰 변화 없이 계승되어 갔던 것이다.

끝으로 영해지역에서의 퇴계학맥의 전개에서 앞으로 새롭게 주목해 보아야 할 점을 지적해본다면 갈암의 모친인 정부인 장씨의 위상이라고 말 할 수 있다.⁵¹⁾ 갈암을 중심으로 한 영해지역의 퇴계학맥은 사실 정부인 장씨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해지역의 퇴계학맥의 전승은 〈퇴계→ 학봉→ 경당→ 석계 이시명→ 갈암→ 밀암〉 정부인 장씨이라고 보는 것⁵²⁾을 고려해 볼 만하다. 이러한 관점은 좀 더 연구를 진전시켜보아야 하겠지만 조선유학의 지평을 넓혀간다는 측면에서도 흥미로운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51) 퇴계학맥의 전승에 있어서 정부인 장씨의 위상에 대하여 주목한 논문으로는 李完裁, 「退溪學脈과 貞夫人 張氏」(『貞夫人 安東張氏의 삶과 학예』, 貞夫人 安東張氏 추모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999.11) 가 있다.

52) 정부인 장씨와 관련하여 영해지역에서의 퇴계학맥의 전승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금장태, 「퇴계학맥과 정부인 장씨」에 대한 논평의 글에서 제시된 바 있다.